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⑫ 서울 은평구 수국사 수국

꽃을 보며 일렁이는 측은지심

'자생식물(186과 943속 3,933분류군), 외래식물(41과 213속 409분류군), 재배식물(241과 1,525속 10,364 분류군) - 전체 1만4706분류군'

위 내용은 대한민국 식물 이름의 통일화 및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 국가수목유전자원 목록심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명기되어 있는 국가표준식물 현황이다.

자생식물은 일정한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야생식물, 외래식물은 국외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생지를 벗어나 생육하는 종, 재배식물은 국내에 의도적으로 유입하여 키우고 있는 식물을 일컫는다.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식물은 자연상태의 생명체가 아니라 인공 교배로 만들어진 외국산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식물이 여름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수국이다.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소개되어 있는 수국을 보면, 수국과 낙엽 활엽 관목으로 중성의 토양에서 잘 자라며, 강한 산성 토양에서는 푸른 꽃을 알카리성 토양에서는 붉은 꽃을 피운다고 한다. 반음지 식물로서 습기가 많고 비옥한 곳을 좋아하며 내공해성이 강하고 병충해가 없어 관리하기가 쉽다는 내용도 있는데, 수국의 속명 'Hydrangea'는 그리스어로 '물', 종소명 'Macrophylla'는 '아주 작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작은 꽃들이 많이 모여 있고, 물을 아주 좋아하는 꽃이 되는데 한자 이름은 수구화(繡毬花)이다. 비단에 수를 놓은 것 같은 둥근 꽃이란 의미인데, 지금 우리는 수국(水菊)으로 표기하고 있다.

우리가 발생시킨 지구 온난화로 올 여름 얼마나 뜨거울지 걱정만 앞서다 그래도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국이 떠올랐는데, 느닷없이 20여 년 전 가본 수국사가 아른거린다. 랩에 운율과 리듬을 부여해주는 라임이란 문장 기법을 좋아하는 탓으로 돌리며 단독주택 길을 조금 헤매다 수국사에 들어선다. 마을과 인접해서 그럴까, 일주문도 천왕문도 없이 곧바로 황금빛 대웅보전과 마주하게 되니 둔탁해지고 있던 눈가가 묘하게 밝아지는 것 같다.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守國寺)는 조선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의 극락왕생을 위해 경릉(敬陵) 동쪽에 정인사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다가 연산군 10년에 화재로 소실되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고, 몇 번의 중수 과정을 거치다가 1900년 고종의 내탕금으로 지금의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수국사 경내에 핀 수국.

황금 사찰이 된 시기는 1992년 한자용 스님이 회주로 부임하면서 수국사 중흥을 표방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황금사원으로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단청을 황금으로 시작하였다고 한다. 법당도 부처도 황금빛을 띠게 한 건 황금이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고 지혜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불교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수국사를 보았을 때 가진 시선은 금가루를 긁어가고 싶은 물질적 욕망이 일면서 동시에 그 욕망을 자극해 수국사에 황금이 쌓이기를 바라는 과정이 그려진 곱지 않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불교가 일군 사찰의 형상들은 모두 상징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깊은 의미를 오로지 색(色)으로만 읽어내려고 했던 지난날이 부끄럽기만 하다. 그러니까 수행 중이었던 부처님은 갈비뼈가 드러난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깨달은 이후 하루 한 끼 정도 식사를 하면서 마른 몸으로 불법을 전하셨을 것이고, 열반에 든 뒤 수행에서 신앙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덕스러운 불상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즉 현세에는 복을 빌고 내세에는 좋은 세상으로 간다는 종교 색채를 띠면서 살이 붙은 성도상이 되었고, 거기에 금빛을 입힌 건 부처님의 몸은 깨달음으로써 타고 있는 불 그 자체이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광명의 고정색인 금을 발랐다는 것이다. 그 의미를 실감나게 접하기 위해 사찰을 금색으로 빛나게 했다는 것에 다다르게 되면,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 또한 더욱 빛나게 될 것 같다.

금처럼 변하지 않는 경지를 갈구하면서 경내를 걷다가 숲에서도 빛나고 있는 초전법륜상 쪽으로 다가가는데, 꽃이 진 불두화 건너 수국이 보인다. 황금에 온 마음을 빼앗겨 수국을 잠시 잊었다가 마주한 하얀 꽃들을 보니 이들의 꽃말인 변덕과 진심 가운데 나는 무엇일까 반성 섞인 성찰을 해본다.

수북한 꽃을 보면 열대에서 온 것 같지만 원산지는 중국이고, 이 중국 수국을 가져다가 여러 형태의 수국을 만들어낸 나라는 일본이다. 그 과정에서 꽃의 본래 기능인 생식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말은 수국에는 암술도 수술도 없고, 씨를 만들 씨방도 없다. 그래서 석녀(石女), 무성화, 중성화, 꾸밈꽃 등으로 불리는데, 번식을 해나갈 수 없다는 걸 보면 측은지심이 든다. 그런데 오로지 관상을 위해 생명을 왜곡시킨 것 또한 우리 인간들이다. 그래서일까, 내게로 파고드는 측은지심에 황금빛이라는 상상의 인식을 덧칠해보며 봉산 숲으로 간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⑫ 박정대의 '가을 저녁寺'

'먼 백제 처녀'와 '팔만대장경'을 찾아서

가을 저녁寺/ 박정대

나는 걸어서 가을 저녁寺에 당도합니다
한 사내가 물거울에 자신의 낯을 비추어보며 추억을 빨래하고 있는 가을 저녁입니다
잉걸불처럼 타들어가는 개심사 배롱낭구 꽃잎에는 어느 먼 옛날 백제 처녀의 마음도 하나 들어 있을 테지요
저녁 예불 드리던 개심사 범종 소리는 서른두 번째에서 한참을 머뭇거립니다 마지막 종소리는 가을 저녁寺로 불어오는 바람에게나 내어주고요
가을 저녁寺에 호롱불이 돋는 地上의 유일한 저녁입니다
한 사내가 연못거울에 어두워지는 낯을 비추어보며 끝내 자신이 걸어가 당도할 집을 생각하는 참 고요하고 투명한 가을 저녁입니다
나는 걸어서 가을 저녁寺를 내려옵니다

– 박정대 시집, 〈아무르 기타〉, 문학사상사, 2004

'가을 저녁寺'라니, 정말 멋들어진 상상이고 비유다. 이 세상 어디에나 있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을 저녁寺'. 필자도 그렇게 '가을 저녁寺'에 가본 적이 있다. 아니, '겨울 저녁寺'에도 가보고, '봄 저녁寺'에도 가보고, '여름 저녁寺'에도 가보았다.

'저녁寺'의 맛은 계절마다 다르다. '봄 저녁寺'는 풋풋하지만, 좀 밋밋하다. '여름 저녁寺'는 싱그럽지만, 좀 나른하다. '겨울 저녁寺'는 깊지만, 좀 차다. 그런데 '가을 저녁寺'는 적막도 적막이려니와, 애수(哀愁)와 여수(旅愁)가 깊다. 굴뚝 연기가 퍼지면 더욱 그렇다.

박정대 시인은 "추억을 빨래하"며 어느 '가을 저녁寺'에 갔을까. 충남 서산의 개심사(開心寺)였던 것 같다. 그리고 당도한 "개심사 배롱낭구 꽃잎"에서 "옛날 백제 처녀의 마음도 하나" 발견한 것 같다. 시인이 아니면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살 떨리는' 묘사다.

기막힌 것은 종소리다. 절집에서 새벽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 범종을 친다. 범종소리는 부처님의 음성을 상징한다. 그런데 새벽에는 왜 28번을 치고, 저녁에는 33번을 칠까?

이유가 있다. 새벽에 28번을 치는 것은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힌 세계'인 욕계(慾界) 6천(六天, 여섯 개의 하늘나라)과 '몸이나 물질을 살펴 선정을 닦는 고귀한 세계'인 색계(色界) 18천(十八天, 18개의 하늘나라), '물질이 아닌 대상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얻어진 고귀한 세계'인 무색계(無色界) 4천(四天, 4개의 하늘나라), 도합 3계 28천을 부처님의 음성으로 다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다.

저녁에 33번을 치는 것은 제석천왕이 머무는 선견궁을 포함한 도리천 등 33개 나라에 부처님의 음성이 널리 퍼지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가을 저녁에 당도한 '저녁寺'에서 때마침 범종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서른두 번째 종소리에서 마지막 서른세 번째 종소리로 넘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또 가슴을 친다. '가을 저녁寺로 불어오는 바람에게' 대신 종을 치라고 내어주기 위해서다. 불교의 맛과 멋은 바로 그런 여유와 느림과 배려와 자비에 있다. 그것이 불교의 지혜(반야)이고, 불교의 매력 포인트다.

이 시를 음미하노라니, 문득 선시 하나가 떠올랐다.

"家在天涯遠(가재천애원)/ 迢迢七日程(초초칠일정)/ 隨風桐葉落(수풍동엽락)/ 和露菊花明(화로국화명)/ 簫索三秋晩(소색삼추만)/ 飄然一錫輕(표연일석경)/ 應知故山鶴(응지고산학)/ 待我月中鳴(대아월중명)"

조선시대 침굉(枕肱, 1616~1684) 선사의 시이다. 뜻을 새기면 다음과 같다.

"하늘 끝 멀리 있는 절/ 아득하고 아득한 이레 거리/ 바람 따라 떨어지는 오동잎/ 이슬에 어려 더 밝은 국화/ 삼추 늦가을은 쓸쓸히 저물고/ 날렵하게 가벼운 석장 하나/ 그래, 알겠구나 고향 산 백학이/ 나를 기다리며 달밤에 울 것을"

이 대목에서 따라붙는 동요 하나.

"깊어가는 가을밤에/ 낯선 타향에/ 외로운 맘 그지없이/ 나 홀로 서러워/ 그리워라 나 살던 곳/ 사랑하는 부모 형제/ 꿈길에도 방황하는/ 내 정든 옛 고향" -〈동요 여수(旅愁)〉

박정대 시인이 그렇게 당도한 '가을 저녁寺'가 바로 이것이다.

스님들에겐 부처님과 절집이 영원한 '정든 옛 고향'인 것을, 박정대 시인은 이미 눈치 챈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먼 백제 처녀"라는 살내음도 하나 덧붙인다. 이 얼마나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적 마음인가. 그게 바로 보살심이고 해인(海印)에 다름 아닌 것이다.

박정대 시인은 그 마음을 〈전등寺〉를 통해 다시 한 번 전하고 있다.

"세상의 밤은 모두 전등사 아래로 온다// 대낮의 폭설과 폭설에 뒤덮인 세상의 지붕들을 이끌고 와서는/ 하루 동안 어깨 위에 쌓여 있던 눈발들을 툭툭, 팔만대장경처럼 전등사 앞마당에 흩뿌려놓는다// 어둠과 함께 나의 生도 전등사 아래로 돌아온다// 선수항 지나 반달 언덕쯤, 석모도 떠나가는 옛사랑의 뱃길 전송하던 눈발이며 허공의 유목민처럼 떠돌던 눈송이 몇 개도 어둠과 함께 전등사 아래로 와 깃든다// 지상을 떠도는 눈발들은 지금 모두 전등사 아래로 온다// 전등사에 밤이 찾아와, 누군가 오래 淑香傳을 읽는 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들도 다시 전등사 아래로 돌아오는데// 낮에 내리던 눈발 아직도 여전히 남아서 서성거리는 이 밤을/ 한 잔의 찻물 속에서 고요히 끓어오르는 이 겨울밤을, 잠들지 못한 내 마음이 끝내 불 밝히고 있는// 이 地上의 전등寺 한 채" -('전등寺' 전문, 〈아무르 기타〉)

자유자재한 박정대 시인의 시적 에너지와 불심(佛心)이 '식스 센스'[Sixth Sense, 육감(六感)]로 다가온다. 폭설로, 폭설과 함께 '먼 백제 처녀'를 찾아, '팔만대장경'을 만나러 저녁 '전등寺'에 가고 싶은 날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먹는 법
한 포씩 500ml물에 타서 수시로 나누어 마신다
나만의 요리에 조금 뿌려 먹는다
컵에 조금씩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차처럼 나누어 마신다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